

## 1 개요

피쟁이조상본 황정싱본은 백정 집안에서 조상신을 모시게 된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.

황정승이 중병이 들어 소 아홉을 잡아먹어야 낫는데 두 아들이 반대하여 딸과 막내아들이 몰래 소를 잡아 먹여 낫게 해 주었다.

## 2 내용

황정승은 산신으로 대접하는 신이다.

옛날 황정승은 아들 삼형제와 딸 하나를 두었다. 황정승이 뇌병(腦病) 같은 병으로 삼년을 앓아 말랐다. 황정승은 자식들에게 아홉 달에 소 아홉 마리를 잡아 먹여달라고 하였다. 위로 아들 형제는 반대하고, 막내아들과 딸만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다.

하루는 누이가 작은오라비에게 함께 소를 잡아 아버지를 먹이자고 하였다. 작은오라비가 누이에게 대장간에 가서 칼을 만들어 올 수 있겠냐고 물었다. 누이는 아버지를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면서 대장간에 가서 칼을 만들어다 명주전대로 말아 선반에 올려 두었다. 날이 어두워지자 오누이가 그 칼을 가져다 소를 잡은 뒤에 다시 칼을 전대로 말아 선반 위에 올려 놓았다. 아버지의 말대로 아홉 달에 소 아홉 마리를 잡아 먹이니, 아버지의 병이 나았다.

백정집에서 굿을 하려고 하면 이 본풀이를 풀어야 하는 법이다.

## 3 특징

제주시 삼도동에 거주하던 김오생 심방의 전승자료이다. 피쟁이조상본이라고도 하고 황정싱본이라고도 한다. 피쟁이는 곧 백정이다. 황정싱은 황정승(黃政丞)이겠는데, '황'은 황소에 이끌리어 붙인 것으로 보인다. '정승'은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소를 잡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, 백정을 낮추어 보지 말라는 뜻이 담겼을 수 있다. 중병에 걸린 아버지가 소를 잡아 먹여달라고 하는데도 두 아들이 따르지 않은 까닭은 알기 어렵다.

## 4 핵심어

황정승, 삼형제, 뇌병, 대장간, 백정, 피쟁이조상본, 소 아홉 마리

## 5 원전 서지사항

피쟁이조상본 황정싱본(진성기, 《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》, 민속원, 1991)

## 6 관련 자료